

일부 지역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의 관련성

손은주 · 장경애¹

동의대학교 보육 · 가정상담학과 · ¹신라대학교 치위생학과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learning attitude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Eun-Joo Son · Kyeong-Ae Jang¹

Department of Childcare and Family Counseling, Dong-eui University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Kyeong-Ae J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illa University, Baekyang-daero(St), 700 Beon-gil(Rd), Sasang-gu, Busan 617-736, Korea, Tel: 051-999-5427, Fax: 051-999-5707, E-mail: jka@silla.ac.kr

Received: 26 July 2015; Revised: 3 August 2015; Accepted: 2 October 2015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learning attitude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608 middle school students in Gyeongnam from July 1 to 23, 2013.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smoking behavior, self-efficacy, and learning attitude. The questionnaire was adapted and modified from Kang, Park, and Koh. The self-efficacy was divided into general efficacy and social efficacy. The learning attitude was divided into attention concentration, learning method, and self learning.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Win 21.0 program.

Results: The nonsmoking students tended to have higher general efficacy and social efficacy than the smokers ($p<0.01$). The nonsmokers had more attention concentration in learning attitude than the smokers ($p<0.001$). The learning method ($p<0.001$) and self learning ($p<0.001$) showed the same results between the two groups. The smoking experience had the negative correlation with general efficacy ($r=-0.164$) and social efficacy($r=-0.154$). The general efficacy is positively related to social efficacy ($r=0.568$). The smoking experience had the negative correlation to attention concentration ($r=-0.235$), learning method ($r=-0.211$) and self learning ($r=-0.148$). The attention concentration was positive relation with learning method ($r=0.690$) and self learning($r=0.662$). The learning method had positive relation to self learning ($r=0.764$).

Conclusions: The smoking students tended to have lower self-efficacy and learning attitude, so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the smoking prevention program in the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learning attitude, middle school students, self-efficacy, smoking

색인: 자기효능감, 중학생, 학습태도, 흡연

서론

청소년기는 체격이나 판단력에 있어서도 완전히 성장하지 않아 주위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쉽게 받으며 정신적, 심리적 압박감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표출하는 혼란과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1,2)}.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행동 중 흡연은 음주 및 약물남용의 비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³⁾.

흡연은 세계적으로 건강증진정책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다양한 질병과 사망의 원인이 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 심혈관질환과 폐질환, 치주질환과 구강암 등 10대 주요사망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흡연은 일시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니코틴 의존성으로 금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흡연은 구강건강에 위협을 초래하는 여러 생활양식으로 치주조직병 발생과 진행 촉진에 영향을 주어 치조골의 소실로 구강건강을 악화시키고 치아를 상실하게 한다^{4,6)}. 그리고, 흡연량이 많을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고 니코틴 의존도가 높은 경우 구강건강에 대한 실천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⁷⁾. 윤과 양⁸⁾의 연구에서도 흡연자가 비 흡연자보다 구강위생관리능력이 불량 수준으로 나타나 흡연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현황에 따르면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2012년 남학생 16.3%, 여학생 5.9%로 조사되었다⁹⁾. 청소년 흡연은 세포 조직 장기가 미성숙하기 때문에 피해가 크며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을 높여 흡연과 관련된 암 발생 위험률을 높인다. 또한 신체의 급격한 변화에 비해 정서적, 심리적 발달은 미숙한 단계에 머물러 내적 갈등에 대한 불안과 좌절 등의 정서적 변화를 나타낸다고 한다^{10,11)}. 청소년기의 흡연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호기심으로 흡연을 시작하고 규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흡연을 시작하기도 한다¹²⁾.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및 환경적인 요인들이 흡연에 작용하고¹³⁾, 비 흡연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의 낮은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은 흡연을 증가시키므로 흡연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흡연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⁴⁾.

자기효능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¹⁵⁾,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데¹⁶⁾ 높은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 낮은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동에 있어 그 행동을 회피하게 하여 행동 변화의 중요한 증재자로서 역할을 한다¹⁷⁾. 학습태도는 학교와 학습과제를 긍정적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하나의 지속적인 심리적 경향성으로 학습자나 학교, 학습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로 학교 생활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¹⁸⁾. 학습태도는 장시간에 걸친 성공과 칭찬, 실패와 비난 등 학습자의 경험과 학교학습 생활을 통해서 교사, 친구로부터 무의식적으로 형성된다고 한다¹⁸⁾. 주의집중력은 주어진 시간에 과제를 완성하고 구체적인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으로 학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흡연량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높고 주의집중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¹⁹⁾. 따라서 주의집중력 저하는 과제수행과 학습장애의 원인이 되므로 학생

들의 주의집중력은 학업수행에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청소년들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고, 흡연의 예방과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들의 금연교육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학교가 교육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²⁰⁾. 청소년에게 중독성이 높고 습관성이 있는 흡연은 스스로 금연하는데 어려우므로²¹⁾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의 위험과 금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인식과 태도를 변화시켜 건강과 구강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 용돈수준, 음주경험, 사회심리적인 요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논문²²⁻²⁴⁾은 다양하나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및 흡연의 실태를 알아보고, 흡연경험에 따른 관련요인을 파악하여, 학교에서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경상남도 일부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자기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담임교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고 회수 하여 총 608부가 조사되었으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하고 60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도구는 강¹⁸⁾, 박과 고²²⁾의 논문을 근거로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흡연실태, 자기효능감, 학습태도로 작성하였다. 조사도구에서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으로 구분되며, 학습태도는 주의집중, 학습방법, 자율학습의 요인으로 구분된다. 각 세부 요인별 Cronbach의 α 계수는 자기효능감 0.894, 학습태도 0.926으로 나타났고, 각 하부요인은 일반적 효능감 0.891, 사회적 효능감 0.702, 주의집중 0.846, 학습방법 0.859, 자율학습 0.773으로 모든 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으로 나타나 설문도구의 내적일치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 자료분석

설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알아보았고,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흡연관련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현재 흡연경험에 따른 일반적 효능감, 사회적 효능감, 주의 집중, 학습방법 및 자율학습의 차이는 t-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흡연비율은 전체 602명 중 흡연을 경험한 학생의 수가 124명으로 20.6%로 나타났다. 학년 분포에서는 1학년이 흡연을 경험

한 학생은 19.3%,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80.7%이었고, 2학년은 흡연을 경험한 학생 24.4%,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75.6%이었다. 3학년은 흡연을 경험한 학생 18.4%,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81.6%로 나타났다.

2. 흡연의 첫 경험 시기와 동기

흡연의 첫 경험 시기와 동기에 대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학생들에게 한번이라도 흡연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학생 602명중 124명이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24명을 대상으로 흡연의 첫 경험 시기와 동기를 조사한 결과, 첫 흡연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 40.3%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6학년이 23.4% 순이었다. 흡연의 동기는 호기심이 60.5%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와 선배의 권유로 흡연을 하였다는 응답이 29.0%로 많았고, 스트레스 해소가 이유라는 응답도 5.6%로 나타났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Unit: N(%)

Variables	Division	Smoking experience		Total
		No	Yes	
Grade	1st	163(80.7)	39(19.3)	202(100.0)
	2nd	146(75.6)	47(24.4)	193(100.0)
	3rd	169(81.6)	38(18.4)	207(100.0)
Total		478(79.4)	124(20.6)	602(100.0)

Table 2. Motivation of the first experience of smoking

Variables	Division	N	%
Smoking experience	No	478	79.4
	Yes	124	20.6
	Total	602	100.0
Smoking time	Elementary 3rd grade or less	9	7.3
	Elementary grade 4	8	6.5
	Elementary grade 5	11	8.9
	Elementary grade 6	29	23.4
	Middle school 1st	50	40.3
	Middle school 2nd	13	10.5
	Middle school 3rd	4	3.2
	Influence of friends and seniors	36	29.0
	out of curiosity	75	60.5
Smoking motivation	Stress relief	7	5.6
	Making friends	4	3.2
	In order to show terrific appearance	2	1.6
Total		124	100.0

3.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일반적 효능감 점수는 흡연을 경험한 학생 3.13점,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3.38점으로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사회적 효능감 점수는 흡연을 경험한 학생 3.13점,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3.36점으로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4. 흡연경험에 따른 학습태도

흡연경험에 따른 학습태도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주의집중 점수는 흡연을 경험한 학생 2.94점,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3.29점으로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학습방법 점수는 흡연을 경험한 학생 2.87점,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3.22점으로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자율학습 점수는 흡연을 경험한 학생 2.79점,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 3.00점으로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나타났다($p<0.001$).

5. 흡연경험, 일반적 효능감 및 사회적 효능감간의 상관관계

흡연경험, 일반적 효능감 및 사회적 효능감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흡연경험은 일반적 효능감($r=-0.164$), 사회적 효능감(-0.154)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일반적 효능감은 사회적 효능감($r=0.568$)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6. 흡연경험, 주의집중, 학습방법 및 자율학습간의 상관관계

흡연경험, 주의집중, 학습방법 및 자율학습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흡연경험은 주의집중($r=-0.235$), 학습방법($r=-0.211$), 자율학습($r=-0.148$)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주의집중은 학습방법($r=0.690$), 자율학습($r=0.662$)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학습방법은 자율학습($r=0.764$)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Table 3. Self-efficacy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Variables	Smoking experience(Mean±SD)		t-value
	No(N=478)	Yes(N=124)	
General efficacy	3.38±0.56	3.13±0.76	3.419**
Social efficacy	3.36±0.57	3.13±0.74	3.299**
Total	3.38±0.50	3.13±0.71	3.618***

** $p<0.01$, *** $p<0.001$, p was by independent t-test

Table 4. Learning attitude according to smoking experience

Variables	Smoking experience(Mean±SD)		t-value
	No(N=478)	Yes(N=124)	
Attention concentration	3.29±0.58	2.94±0.58	5.914***
Learning method	3.22±0.59	2.87±0.62	5.292***
Self learning	3.00±0.56	2.79±0.58	3.671***
Total	3.16±0.52	2.86±0.52	5.575***

*** $p<0.001$, p was by independent t-test

Table 5.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Variables	Smoking experience	General efficacy	Social efficacy
Smoking experience	1		
General efficacy	-0.164**	1	
Social efficacy	-0.154**	0.568**	1

** $p<0.01$

Table 6.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Variables	Smoking experience	Attention concentration	Learning method	Self learning
Smoking experience	1			
Attention concentration	-0.235**	1		
Learning method	-0.211**	0.690**	1	
Self learning	-0.148**	0.662**	0.764**	1

**p<0.01

총괄 및 고안

중학생들의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은 학교에서 중학생의 건강 및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수적인 정보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부 지역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분석하였다.

흡연경험 비율은 전체 602명 중 124명으로 20.6%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조사⁹⁾에서 나타난 남자 중학생의 흡연율 9.8%보다 높게 나타났다. 흡연경험과 흡연율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흡연을 경험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청소년의 흡연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흡연의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의 동기는 호기심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와 선배의 권유, 스트레스 해소가 이유라는 응답순으로 나타났다. Simons-Morton²⁵⁾의 연구에서 흡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친구를 선택할 수 있고, 흡연이 친구를 선택하고 관계를 맺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²⁶⁾. 이에 학교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 정서적, 심리적 흡연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공하여 건강 및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흡연의 부정적인 생각이 올바른 행동변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에서 일반적 효능감과 사회적 효능감 점수는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p<0.01$) 흡연경험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흡연경험은 일반적 효능감($r=-0.164$), 사회적 효능감(-0.154)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일반적 효능감은 사회적 효능감($r=0.568$)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등²⁷⁾의 연구에서 흡연행위 단계별로 지각된 사회규범과 자기효능감은 흡연거절 자기효능감이 낮은 학생은 높은 학생에 비해 흡연할 확률이 16.4배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김¹⁴⁾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증가한 고등학생은 흡연량이 감소한 결과를 보고하여 청소년의 자기효능

감은 금연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와 정²³⁾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 및 금연 자기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이 흡연 고등학생에게 흡연으로 인한 손과 익의 계산을 통해 흡연의 심각성과 성공한 자신의 미래를 연상해봄으로 금연의 의지가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청소년들에게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시 자기의 지를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최와 송²⁸⁾은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보건행동 실천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금연교육 프로그램으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 방법의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흡연경험에 따른 학습태도에서 주의집중, 학습방법과 자율 학습 점수는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나($p<0.001$) 흡연경험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흡연경험은 주의집중($r=-0.235$), 학습방법($r=-0.211$), 자율학습($r=-0.148$)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주의집중은 학습방법($r=0.690$), 자율학습($r=0.662$)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학습방법은 자율학습($r=0.764$)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한과 전²⁹⁾의 연구에서 주의력이 짧은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무관심한 환경적 상황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일에 자신감이 없고 우울해하며 매사에 불안하므로 타인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이거나 거짓말과 같은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과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흡연량의 관련요인은 우울, 긴장상태, 스트레스 불안이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보고하였고³⁰⁾, 청소년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특성에서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평소 학교생활 만족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흡연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²⁷⁾. 학업적 자율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대해 흥미와 즐거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³¹⁾, 학업적 자율감은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여 해결하고 학습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³²⁾. 변과 이¹⁹⁾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흡연과 우울, 주의집중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여 흡연경험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학업성취도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흡연관련 요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학습태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구강보건의 지식수준 및 태도는 밀접한 영향이 있으며, 구강보건의 지식과 태도는 구강보건교육을 통하여 변화된다고 하였다³³⁾. 즉 학교에서는 구강보건교육 영상과 시각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남자 중학생을 대표하는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대표성 있는 표본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속 연구로는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적용 후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후 학교와 부모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들의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흡연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의 관련성을 파악한 후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경상남도 S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23일까지 조사되어 총 602부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흡연의 첫 경험 시기와 동기는 전체 학생 602명중 124명이 흡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첫 흡연시기는 중학교 1학년이 40.3%, 초등학교 6학년이 23.4% 순이었다. 흡연의 동기는 호기심이 60.5%, 친구와 선배의 권유로 흡연을 하였다는 응답이 29.0%, 스트레스 해소가 이유라는 응답도 5.6% 순으로 나타났다.
2. 흡연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에서 일반적 효능감 점수는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사회적 효능감 점수는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3. 흡연경험에 따른 학습태도에서 주의집중 점수는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학습방법 점수는 흡연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이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자율학습 점수는 흡연을 경험하지 않

은 학생이 흡연을 경험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p<0.001$).

4. 흡연경험은 일반적 효능감($r=-0.164$), 사회적 효능감(-0.154)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일반적 효능감은 사회적 효능감($r=0.568$)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5. 흡연경험은 주의집중($r=-0.235$), 학습방법($r=-0.211$), 자율학습($r=-0.148$)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주의집중은 학습방법($r=0.690$), 자율학습($r=0.662$)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학습방법은 자율학습($r=0.764$)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 남자 중학생의 흡연경험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학습태도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어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접근방법에 적용하고 나아가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References

1. Park NH.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smoking, drinking in adolescents. J Korean Soc Health Educ and Promot 2005; 22(4): 123-36.
2. Son SY. The study on predictors of depression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Soc Wellness 2012; 7(1): 81-95.
3. Kim HS, Kim HS. The influence of alcohol drinking and substance abuse on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 2002; 41(3): 472-85.
4. Linden GJ, Mullally BH. Cigarette smoking and periodontal destruction in young adults. J Periodontol 1994; 65(7): 718-23.
5. Tonetti MS, Pini-Prato G, Cortellini P. Effect of cigarette smoking on periodontal healing following GTR in infrabony defects. J Clin Periodontol 1995; 22(3): 229-34.
6. Rosen PS, Marks MH, Reynolds MA. Influence of smoking on long-term clinical results of intrabony defects treated with regenerative therapy. J Periodontol 1996; 67(11): 1159-63.
7. Yoo JS, Kim KE, Kim J. A study on actual smoking conditio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lated to dental health of Korean soldiers.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9; 33(3): 356-66.
8. Yoon SU, Yang WH. PHP index according to toothbrushing behavior and smoke status of some local resi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3; 13(2): 261-9.
9.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1

- Korean youth heal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KCDC 2012; 1-6.
10. Anderson MR. Risk of lung cancer, chronic bronchitis, ischemic heart disease and stroke on ration to type of cigarette smoke. *J Epidemiol Comm Health* 1985; 39: 286-93.
11. Kim JH, Lee SK, Park YD. A survey of the smoking status and recognitions of dentists.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9; 33(2): 288-97.
12. Parvizy S, Nikbahkt A, Pournaghash Tehrani S, Shahrokhi S. Adolescents' perspectives on addiction: Qualitative study. *Nurs Health Sci* 2005; 7(3): 192-8.
13. Collins RL, Ellickson PL. Integrating four theories of adolescent smoking. *J Substance Misuse* 2004; 39(2): 179-209.
14. Kim HO. A study on the smoking related social influence, refusal skill and nonsmoking related self-efficacy among adolescents. *J Korean Acad Child Health Nurs* 2003; 9(3): 237-49.
15. Chung EC, Doh BN. Job stress, self-efficacy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hospital nurse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002; 11(3): 398-405.
16. Oh JC, Yang TS. An effects of servant leadership of manager on self-efficacy, trust and service orientation: focused on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 organization. *J Korean Academic Assoc Bus Administration* 2009; 22(3): 1245-68.
17. Betz NE, Hackett G. Career self-efficacy. Back to the future. *J Career Assessment* 2006; 14(2): 3-11.
18. Kang HS. The effects of the academic self-efficacy and learning attitude middle school students' achievement [Master's thesis]. Kangwon: Univ. of Kangwon National, 2012.
19. Byeon YS, Lee HS. Relation of the depression and attention concentration by smoking status among adolescents. *J Korean Acad Adult Nurs* 2008; 20(2): 46-53.
20. Kim YS. The effects of a self-esteem and smoking cessation self-efficiency improvement program on smoking high school students. *J Korean Acad Comm Health Nurs* 2011; 22(2): 121-30.
21. Kim MS, Kwun JH. A test of cognition-mediated model of adolescent smoking behavior. *J Korean Clin Psychol* 2004; 23(2): 297-312.
22. Park SA, Koh HJ. Influencing factors on smoking habits among college women students. *Keimyung J Nurs Sci* 2005; 9(1): 25-38.
23. Choe EY, Jeong SH. The effect of self-efficacy promotion smoking cessation program on the amount of smoking, co, urine cotinine level and self-efficacy for adolescent smokers. *J Korea Community Health Nurs Acad* 2012; 14(2): 103-11.
24. Jung JS. A study on the impact of adolescent smoking characteristics on the attitude toward anti-smoking advertisements. *J Korean Assoc Advert Public Relat* 2013; 96: 278-317.
25. Simons-Morton BG. The protective effect of parental expectations against early adolescent smoking initiation. *Health Educ Res* 2004; 19(5): 561-9.
26. Aloise-Young PA, Graham JW, Hansen WB. Peer influence on smoking initiation during early adolescence. A comparison of group members and group outsiders. *J Appl Psychol* 1994; 79(2): 281-7.
27. Yi Y, Yun SN, Ko Y, Chang MK, Nam BR.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o youth smoking based on the stage of change. *J Korea Acad Com Health Nurs* 2009; 20(2): 225-33.
28. Choi EJ, Song YS. The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behavior intention and self-efficacy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2012; 12(3): 485-93.
29. Han JH, Chun SY.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using korean painting medium on the attention of elementary students. *Korean J Art Therapy* 2013; 20(2): 359-78.
30. Sok SR. An analytic study on influencing factors for the number of smoking cigarette per day in adult men.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7; 16(2): 113-20.
31. Yamauchi H, Tanaka K. Relationas of autonomy, self-referenced beliefs, and self-regulated leaning among Japanese children. *Psychol Rep* 1998; 82: 803-16.
32. Yu JH, Chang KM.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child 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autonomy and school achievement. *J Korea Learning Disabilities* 2007; 4(1): 117-33.
33. Jung YH, Shin HM. The effects of oral health education activities in kinder garten and elementary schools. *J Future Early Child Educ* 2009; 16(2): 171-91.